

# 태평양주보 KOREAN PACIFIC WEEKLY

발행인 반행소	동지 회중앙부 931 North King St. Honolulu, Hawaii	Publisher Address	Korean Dongji Hoi 931 North King St. Honolulu, Hawaii
사장 주필 편집 발행호수 반행일	티정준 김광현 850-849 1731 음력 1월 5일	President Editor Telephone Subscription Issue No. Date	Chung Kun Lee Donald C.W. Kim 850-849 \$10.00 per year 1731 Feb. 21, 1969: Fri.

## 소련. 니슨외교구체화에 큰 관심 힘의 정책에는 경계

(모스크바 2월20일밤, 공동) 니슨미대통령의 구라파제국방문에대해서, 아직까지 소련은 여전히 정관하는 태도를 취하고있는데, 소련이 이 방문여행에 큰 관심을 가지고있는것은 확실하다. 소련의 관심은 구체적으로는, 니슨대통령이 이번의 여행에서 장래의 미.소관계개선에 이룩될 행동을 취할것인가에있다고보아도되다. 니슨대통령은 취임후 1개월째되지안어, 중동, 백취산 방지조약비준, 미.소 미사일교섭등 국제제한해결에 의욕적인 자세를보였다. 그러나 이것은 어떠 가지나 의욕의 표시만으로도, 실제의 행동은 모두 이제부터이다.

### 구라파 방문

이번의 구라파방문도 같이 람색의 박각으로 나오는것은 아니다. 소련이 니슨외교에대해서, 여전히 심중한 태도를 취하고있는것은 이대문이다. 특히 이번의 방문은 니슨대통령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미친정권의 구라파중시정책이 점점 움직이기시작한것을 의미하고, 소련이 이에 큰 관심을 가지고있는것은 사실이다. 니슨대통령이 선거절중에 주창한 구라파중시론은, 아세아에 정신을 빼앗긴 존슨대통령에 대항키 위한것이었는데, 그의 진실한 목적이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강화, 다시말하자면 소련에대한 힘의 우위라는 생각에서 나온것이라는것은, 이미 자주 공언하여온데로 이다. 따라서 니슨 구라파방문에대한 소련의 높은 관심은 그대로 경제실에 달려있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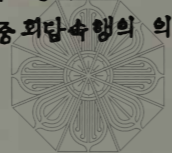
### 북대서양조약기구 강화책

북대서양조약기구강화에는 두가지의 생각이있다. 하나는 군사력의 증강이며, 단 하나는 정치면 에 입을둔 가맹국간의 결속단결강화이다. 군사력강화의 점에서는 작년 11월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리사회결정에따라, 최근 서독영에서 행하여진 미군연습, 영국의 지중해함대증강, 서독군의 전우 령강화등 속한 행동이 취해졌다. 이에대해서 소련은 강한 반발을 보이코있는데, 실제에잇서서는 첩모사건에대한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반발이며, 소련으로서는 자업자득이다. 문제는 니슨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 강화를 명목으로, 이이상 군사력강화의 태도를 보이는가인데, 만일 그러한 일출한다면, 미.소간의 화해의 기운이 멀어지는것은 미하지못할것이다.

### 미국 가까이 중공에 대한 회담의사 표시

(의싱은 2월20일밤, 공동) 의싱은의 소식들이 19일 말한바에의하면, 미국은 중공에대해서, 미. 중 회담속행의 의사를 표명한 공식서한을 보낼것으로도보인다.

(제2면에 계속)



(제 1편으로부터 계속)

미정부당국자는 중공이 20일의 제 135회 미.중 회담을 중지한것에대해서 여전히 그의 의사를 알지 못하고있는데, 불원간 재개될것으로보고있다. 한편, 미국무성측은 중공이 미.중 회담을 중지한것을 북경정권내부의 의견대립 때문이고, 미국이 또 회관주재중국임시대리대사의 미국입국을 허가한것 때문이 아니라고보고있다.

### 북경의 강경화

와싱턴에서는, 중공지도층의 내부에, 이단계에서 박스정권과 회담하는것이 현명한것인가를싸고, 의견의 대립이있고, 결국, 강경파선이 승리하였다고하는 관측이잇었는데, 이관측에의하면, 북경의 강경파는 닉슨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으로보아, 대한의 국부지지에대해서는 미국이 아무 변화도 보이지안할것으로 결론을 낸것이라고보고있다.

### 파리 화평회담 진전없다

(파리 2월20일밤, 에이 피) 파리의 비에트남 화평 회담은 20일에 제5회본회의를 열었는데, 27일에 차회본회의를 연다는점에서 입지를 보았을때, 오늘의 회의에도 성과를 보지 못하고, 정전상태를 깊게하였다라는 감을 주는중 뜻났다.

### 이라크에서 스파이죄로 대량처형

(다마스카스 2월20일밤, 에이 피) 바쿠닷트방승에의하면, 이라크는 히스라엘을위하여 스파이 행위를하였다라는 죄로 사형의 선고를받고잇는 청년 7명을 20일에 처형하였다. 이라크에잇서서의 이러한 대량처형은 지난 3주일간에 두번째이다. 20일 처형된 7명은 모두가 24세의 청년으로 그중의 2명은 군인으로 총살형, 5명은 민간인으로 교수형에 처해졌다. 또한 군인이 사형의 선고를 받고잇었는데, 그는 당국과 협력하여 스파이 일당의 활동을 폭로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형형을 감하여 종신형으로 변경하였다고한다. 7명중에는 유래인은 석거 잇지안었다. 또 7명의 시체는 이라크의 수도의 공장에 버려졌다.

### 우세하여지는 적의 병력, 목표는 사이곤

(사이곤 20일밤, 에이 피) 미군사고문측에의하면, 사이곤과 그의 주변에대한 적의 공격병력은 과거 13개월중에 7천5백명으로부터 6만5천명으로 증강되어, 작년당시의 대공세의 병력보다 우세하다. 이중 2만으로부터 3만이 공격부대로, 나머지는 지원부대로보인다. 동측은 공격이 빠른 업제, 어디서 개시될지는 불명인데, 적의 합수문서와 포도의 정보로서는 사이곤과 주변 11성을 포함하는 제3군지역에 공격목표가 서있다고보고있다. 메콩.델라지역에서는 람비에트군, 라오스국경의 산악지대에서는 미해병대대가 공산군과 교전 함에서 적 64명을 죽였다. 미군의 전사자는 1명이였다.

### 미군 손실 합계

(사이곤 20일밤, 에이 피) 미군사령부의 발표에의하면, 비에트남전선에잇서서의 권주의 미군 전사자는 197명, 부상자는 1천 1백 3명, 전쟁개시이래의 총계는 전사 3만 1천 7백 59명, 부상 20만 7백 92명으로되었다.

### 닉슨대통령 드신대사임명

(와싱턴 20일밤, 에이 피) 닉슨대통령은 20일 다음피카이 구라파 3국에의 미국대사를 새로이 지명하였다.

(제 3편에 계속)



(제 2편으로부터 계속)

소련주재신대사에는 제이.클.비시 (연합군대사), 구영대사에는 윌리.아넬버그씨 (외라델 피아 출판업자), 주베르기신대사에 존.아이젠하워씨 (아이젠하워전대통령의 형제) 이등명은 극외 상원의 귀입출입이 심연한다.

### 한국정부, 대일 항의를 혼령 재일조선인 북선귀환으로

(동경 2월20일 밤, 통동) 20일의 서울방송에의하면, 한국정부는 통일, 일본정부가 재일조선인의 북조선귀환을 재개하는 방침을 굳게하였다는 보도에대해서, 이를 저지하도록 주일한국대사관에 지시하였다. 한국정부는 육이 권에 일본을 방문한 장기영대통령특사에대해서, 일본정부가 재일조선인 북조선귀환을 재개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점을 지적하고, 일본정부에 강경한 항의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 비에트남의 연합군 병력 백차만

(사이곤 2월15일 밤, 에이 피) 사이곤의 미군대변인에의하면, 비에트남에있어서의 연합군의 병력은 160만을 초과하고, 여태까지의 최고수가 되었다. 이중 약백만명은 남비에트남의 정부군, 53만9천명은 미군, 6만8천명은 단단 연합군이다. 이중 한국군이 5만명, 오스트레리야군 7천5백명, 라이군이 8천5백명, 비올빈군이 1천5백명, 뉴지-랜드군이 5백명으로도 되어있다.

### 페루가 미어선을 포격, 포획

#### 석방되었는데, 야극과계 더 악화

(페루 리마 2월15일 밤, 에이 피) 페루해안에서 조업중의 미국의 어선단이 14일 페루해군포 함에 포격을 당하고, 어선단의 일척, 마리나오가 잡히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상자는 없었는데, 라자스미국주장관은 페루의 벨케마이야주미대사를 국무성에 초빙하고, "부담한 일이다" 라고 항의하였다. 이에대해서 동일 페루해군성은 "마리나오는 벌금을 지불한우, 다타라함에서 석방 되었다." 라고 발표하였다. 어선단의 일척, 샌.주안호의 존.베릿시모선장은 권 화회전에서 "우리는 50발이상의 포격을 받았다. 페루의 왕도로부터 5명의 승무원이 마리나오에 올라라는 것이 보였다." 라고 말하였다. 북미어선조합 피라노주사의 말에의하면, 금년에 들어서 미국어선이 페루에서 포격을 받은것은 이것이 두번째이다.

### 영해 침범을 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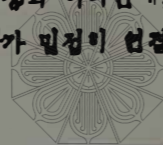
벨케마이야대사는 "어선단은 페루영해내에서 무어카로 조업중이었다" 라고 받고있다. 마리나오는 포격을 받았을때 페루해안 23마일 이상의 지점에서 조업하고있었다. 미국은 어업권관 수역으로서 12마일을 인정하고있는데대해서, 페루는 200마일 이내는 영해라고 주장하고있다.

### 대 페루 원조를 증지

미국주석속에서는 "이 사건은 페루에대한 미국의 원조증지를 빨라지게하는 걸과 될것으로 모른다" 라고 받고있다. 1968년의 미국의 대페루원조액은 군사원조 6백만불, 경제원조 1천5백만불이다.

### 사건과 금후

이번의 사건은 남미의 태평양안제국이 광범위한 영해를 주장하기시작한것을 시사코도는 일련의 분쟁의 하나인데, 페루해군함정이 피격된 수단을 취한 배경에는, 최근의 미국-페루관계의 악화 과가 밑점이 연결되어있다. (제4편에 계속)



(제3면으로부터 계속)

페루에서는 미국자본의 독점에 반대하는 민족적감정이 높 아지고있으며, 베라스코대통령은 금년 초부터, 체코소바키아, 소련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는등, 공산권에의 접근을 지천시키고있다. 이번의 포격사건에대한 나스 미정권의 태도여하로 제2의 류바사건에 발전할 우려도있다.

### 오기나와 문제 금년중에 결정 마스키 상원의원, 동경에서 담화

(동경 2월15일밤, 공동) 제2회 입.미의원회담은 15일아침, 동경의 경단언론에서 거행되었는데, 보도관계자와의 의견교환은 최우로 전일정을 종묘하였다. 이에출석한 미의원단의 마스키민주당 상원의원은 동일기자회견하고,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1. 회담의 본의의 중심은 오기나와의 인권보장문제였다. 오기나와에대해서는, 그의 시정권 미군기지는 중국적으로는 일본에 반환되고, 일본에있는 미군기지도 모두가 철거된다. 이경우, 일본과 미국의 인권보장을 어떻게 하는가가 문제이며, 이것이 해결된다면, 오기나와문제나 안보문제는 해결하게 될것이라고 일본측에 권하였다.

1. 오기나와의 시정권반환에대해서는, 금년중에 결정을 지게 될것이다. 그러나 그경우의 지지 형편에대해서는 나 자신의 의견은 가지고있으나, 정부와 타협하여야하기때문에 나오서는 여기서 말할수없다.

### 동지회중앙부 리사회결의안

예보안바와같이 2월16일아오2시반에 동지회편집 회실에서 소집되었던 동지회.오상부 양측의 회원 대회에 회원들이 일기불순으로 만이 불참하였으나, 회합의 시일을 연기할수가없서, 당일의 회집 명칭을 리사회로 지정하고, 회의안 결 파사양을 아태와같이 반포하오니, 일반회원들께서는 참고 하시고 회무진행에 불비한 조건이있으면, 유일 회의시에 고정도할수있으니, 불참한 조건을 동지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1. 동지회중앙부리사장이하 권리사원이 책임을 지고 다년간 시무하여왔는데, 우리사회에 발전이 업스무로 유감으로 생각하는중, 금년에는 행정리사원을 전부새로 선택하여 회무를 진행하는것이 동지회나 오상부의 진보발달을위해 조켓다는 절명일것이나, 지금 단 사람이하드라도 우리사회 운영에 별다른 모책이업술것이니, 리사장이하 리사원을 개선치말고 모두 류입하는것이 조라는 결정이있서, 앞으로 동지회회무가 진행될때까지 그데로 시무하게 된다

2. 오상부원은 장정에의해 동지회년매금을 정기일자내에 필납하도록 되어있으나, 동지회회원은 동지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년매금을 보내주셔서 래평양주보간행의 경비를 보용하여왔는데, 년년이 구립자가 감소되어 금년도에는 주보간행의 경비문제도 그리고 인선문제도 주보간행이 정지될것으로 기대하였는데, 회관이 원천리 방패되기까지 기관보를 유지하여야된다는 의사 표시가 잇서, 그데로 신문간행을 유지하게한다

3. 동지회관 판매위원장인 리영훈씨가 불참하여, 이사건의 보고가업섯는데, 아직 방패가 되지안온것으로, 회관가대때에대해서는 거관인에 적어도 6개원의 기한을 줄것을 결정한다

4. 코우남 리승만박사의 시신이 서울 동작동국묘지현의 장례지에 안장된지가 3년이나되었는데 아직 비석도업스니, 동지회원들이 큰 유감으로생각하고, 리박사 비석건립 위원으로 동지회서기겸 재무 김창수씨와 리사원 손노디여사를 선입하여, 할수있는데로 조속이 이 비석을 건립하도록 지시결정한다 (주 이비석건립의 비용은 약 6천불가량으로 추산되어잇습)

년매금 오상...김 영기, 박 승우, 리정근, 김창수, 김마르다, 김경호, 임도..박 자도  
10.00 와이아와...안 성표, 조 웹마김, 설매리, 최북남 가이무기...신용영, 신앤디  
아이아.....김봉주 립리아...신로시

